

**서론: 인생의 위기에 빠질 때**

**1. 사면초가(四面楚歌) 에 놓인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출 14:1-2)

 \* 믹돌 (망대:Watchtower) // 비하히롯 (물이 들어오는 입: Mouth of water)

**본론: 위기 속에서 작용하는 성도의 믿음**

**1. 믿음으로 반응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출 14:1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권면 했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출 14:4)

 위의 구절에서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의 다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번역 성경)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 (현대인의 성경)“내가 바로와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단숨에 쓰러뜨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보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권면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마음 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울의 양쪽 무게가 50 대 50 으로 수평한 경우, 1g의 작은 무게 차이만으로도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일예배 설교노트 설교자: 김영목 목사**

**“믿음으로 나아가라”** **출애굽기 14장 10-20절**

**2. 믿음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출 14:15)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 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출 14:16)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곧 길을 만듭니다. 홍해처럼 지금 당장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큰 문제를 직면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 입니다.**